전남매일

2012년 10월 22일 (월)
16면 스포츠

'예견된 부진' 우수선수 영입 급하다

전라남도선수단은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45개 종목 1,625명(선수 1,210명 임원 415명)이 출전, 금39 은49 동58개 종합득점 2만8,471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육상, 수영, 역도, 양궁 등 기록종목의 경기력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득점 406점, 총메달 12개를 더 획득했지만 순위는 당초 목표였던 11위보다 한계단 하락한 12위에 그쳤다.

전남은 경쟁 시·도인 충북이 좋은 대진추첨을 안고 득점 폭이 큰 단체대진종목에서 선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등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부별 성적을 살펴보면 고등부 점수가 다소 하락했다. 고등부는 지난해 1만2,827점에서 올해 1만2,507점으로 320점이 하락했다. 반면 대·일반부는 지난해 1만5,238점에서 1만5,964점으로 726점이 올랐다.

정구가 종합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럭비가 2위, 볼링과 사이클은 각각 3위를 기록했다. 단체대진경기에서는 전남선발 수구와 순천공고 럭비가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반면 야구와 테니스, 농구, 핸드볼, 핀수영은 무득점에 그쳤다.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일반부 53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보성군청 역도팀 장슬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결산 : 전남

양정두 한국신·2관왕 7명 배출 성과
보성군청 나주시청 등 일부 팀만 제몫
지원 없는 시·군팀 도민체전용 전략

◇신기록·연패 풍성

전남은 한국신기록 2개와 대회신기록 3개를 기록했다.

전남수영연맹 양정두가 접영 50m에서 23초77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예선에서의 23초91 한국신기록을 다시한번 깼고 자유형 50m에서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김민석이 세웠던 22초55의 기록을 22초52로 끌어당겼다.

대회신기록은 모두 고등부에서 나왔다. 전남체고 김석일이 육상 해머던지기(64m31)에서, 전남체고 한원남이 육상 원반던지기(52m40)에서, 그리고 전남체고 최미선이 양궁 50m에서 349점을 쏴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2관왕은 7명을 배출했다. 양정두를 비롯해 전남미용고 임사랑이 사이클 경륜과 스프린트에서, 나주시청 나아름이 24㎞포인트레이스와 도로개인독주에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볼링에서는 곡성군청 김현미와 곡성군청 김가람이 각각 2인조전과 5인조전에서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육상에서는 백승호(건국대)가 5,000m와 하프마라톤에서, 보성군청 김경수가 역도 85㎏급 인상과 합계에서 각각 2관왕에 올랐다.

연패 기록도 빼놓을 수 없다. 나아름은 24㎞포인트레이스 4연패, 도로개인독주에서 3연패를 달성하며 사이클 최강자임을 재확인했다.

박선관(한체대)은 배영 100m에서 3연패, 수구 남고부는 2연패, 그리고 정윤균(국군체육부대)은 사격 더블트랩에서 2연패를 차지했다.

◇시군직장팀은 도민체전용?

등위 하락이 보여주듯 이번체전에서는 예상밖의 부진이 이어졌다. 고등부는 1만3,200여점으로 지난해보다 점수가 상승할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점수가 하락했다. 대·일반부도 2,127점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726점 상승에 그쳤다.

결과적으로는 실업팀의 부진이 아쉽다.

매년 전국체전이 끝난뒤 지적되던 점이지만 도민체전용으로 전락한 시군직장팀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전남의 시·군 실업팀은 27개. 그러나 금메달은 보성군청 역도(금3)와 나주시청 사이클(금2), 곡성군청(금2)과 광양시청(금1) 볼링 등에서만 나왔다.

전남의 시군실업팀과 취업선수는 우수선수 부재로 인해 전국대회 엔트리를 맞추거나 도민체전용으로 전락한 상태다. 선수들은 있지만 전국무대에서 기량을 발휘할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명맥만 유지할뿐 실속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체육계의 평가다.

전남은 대학부까지 우수선수를 키워놓고도 정작 실업팀에서 우수선수를 영입할 재원이 없어 고교부 우수선수들이 타 시도 실업팀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에서 지원되던 우수선수 지원금이 없어진지 3년여가 됐고, 이에따라 시에서도 지원금이 나오기 힘든 상태다. 일반부 성적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도내 시군의 행정기관직장팀 주축 우수선수 부재가 전체적인 경기력 약세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한 전남체육은 발전없이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투자와 지원 없이는 체육인재 육성은 어렵다. 전남도의 적극적인 체육인재 육성 의지, 그리고 도와 시·군의 협의를 통해 우수선수를 실업팀으로 영입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최진화 기자

27.9 X 24.5 cm